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현대불교 제 734 호

2009년 6월 3일 수요일
불기 2553년



5월 24일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 前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하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

전국 사찰마다 '극락왕생' 기원

지관 스님 등 조문단 권양숙 여사 위로

"불심 가득했던 그 길, 이어 가겠습니다."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분향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불교계는 하안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막론한 모든 사부대중이 불가 대통령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주요 종단 애도의 뜻 전달

조계종은 5월 23일 서거 소식에 전해진 직후 전국 25개 교구 본사에 분향소를 설치한 데 이어, 24일부터 분향소를 100여 곳으로 늘려 추모객을 맞이했다.

서거 다음날인 2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영남 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 총무원 부·국장스님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조문단이 봉하마을을 직접 찾아 권양숙 여사를 위로했다. 지관 스님과 권여사와의 면담은 서거 후 외부 인사로는 처음이다.

지관 스님은 "노 前 대통령은 불교계에 고마운 분"이라며 "비통하고 힘들더라도 꿋꿋이 살아 주길 바란다"고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단과 함께 합천 해인사 스님 300여 명이 봉하마을 분향소에서 예불을 올렸으며, 이후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등 영남지역 교구본사스님들이 돌아가며 장례 축원을 계속 진행했다. 특히 25일 영수된 입관식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250여 스님들이 참석해 불교식으로 의식을 집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대표 12명도 5월 24일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태고종은 석왕사와 범어사 등 전국 주요사찰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25일 서울 종로역사박물관 분향소를, 28일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태고종과 천태종은 이에 앞서 23일부터 49일 동안 태고종 전국사찰에서 고인의 명복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조석기도예불을 병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진각종도 각 지역 심인당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27일 영남3개교구청이 봉하마을 분향소를 조문하는 등 애도를 표했다.

#전국 사찰 100여 분향소 불자들 추모 발길 이어져

주요 종단 지도자와 스님들의 추모행렬과 더불어 전국 사찰 분향소에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계사 분향소에는 서거 당일 1만 명, 이튿날 5만 명 등 조문인파가 몰리며 영결식까지 약 1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원장 원행) 할머니들이 찾아 평소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노 前 대통령의 서거에 안타까움을 토론했다.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들의 원찰인 강남 봉은사에도 분향소가 마련돼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시민과 불자들이 분향소를 찾았으며, 도선사에도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영결식 당일인 29일 오전 10시에는 합천 해인사에서 조계종 종정 법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 300여 명이 참석한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조제가 열렸다. 이어 4시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영구 행렬이 돌아온 봉하마을 정토원을 비롯한 전국사찰 분향소에서도 49재 조제가 거행됐다.

#정치적 고향 광주지역에는 추모 열기가

노 前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광주지역은 더욱 큰 비통함에 추모열기가 더해졌다. 광주지역은 노 前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이른바 '광주의 선택'으로 극적인 역전을 해, 결국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한 이른바 '정치적 고향'.

광주전남불교계는 광주지역 원각사, 문민정사, 원효사, 무각사와 진남지역 송광사, 백양사, 향일암 등 20여 개의 사찰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역불자들의 조문을 받았다.

광주 문민정사(주지 법선)와 광주전남불교도협의회(공동대표 영조)는 26일 문민정사 대웅전에서 노 前 대통령

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지선 스님(백양사 유내를 초청, 추모법회도 봉행했다.

지선 스님은 "광주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잘한 것 같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추모의 말을 전했다.

28일에는 광주불교사안연합회(회장 성오) 주최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추모법회가 열려 광주시 추모 행사까지 참가행렬이 이어졌다.

또 광주전남불교회합연대는 5월 25일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제목의 추모글을 통해 노 前 대통령의 근생활, 인권변호사 활동, 수감당시 모습, 요가와 명상 장면 등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일상생활 사진을 공개했다.

특별취재팀

"정부는 대국민 사과하라"

청화 스님 등 100인 시국선언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황상의 서울대 교수 등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각계 인사 100인은 5월 28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현 시국에 대한 정부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현 정부는 노 前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검찰이 권위주의적 통제를 자행하는 현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행해왔다"며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범죄구성이 완료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은 이를 확대해 결국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前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현 정부가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국정체신의 청사진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거부터 영결식까지 이모저모

● 불교계 일정 취소, 추모 행사로 대신

불교계는 노 前 대통령의 서거에 각종 행사를 취소하며 추모분위기를 조성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5월 27~28일 열린 군승수련회에 체육·수련 일정을 취소하고, 입재식 전 110여 군승 전원이 불국사 분향소에 조문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도 6월 2일로 예정됐던 본말사주지연수를 7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통합 개최하기로 했고, 조계종 총무원 원우회(회장 김한일)도 29일로 예정됐던 총무원체육대회를 연기하고 분향소 설치 및 참배 일정에 나섰다.

● 지관 스님, 조계사에서 만장 작성

"마음과 육신이 본래 공하고 오고 감이 없으니, 극락이건 부처님 품이건 여유롭게 거니시기를(心體本空寂 無來亦無去 天堂佛刹 逍遙自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추모 만장을 직접 작성했다. 이날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영결식과 노제에 사용될 2000여 만장이 시민들의 참여로 제작됐다.

● 정부, 안전 이유로 PVC 만장 요청

영결식과 노제에 쓰인 2000여 만장이 PVC에 매달렸다. 정부는 안전상 이유로 대나무 대신 PVC를 쓸 것과 서울광장에 만장을 고정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미등 스님(청매의례문화연구원 원장)은 "만장은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로 다비식 후 태우게 돼 있다"라며 "대나무가 아닌 PVC에 만장을 매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범주 스님, 노 前 대통령 추모 퍼포먼스

선화가 범주 스님(상주 달마선원장)이 서울 조계사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달마 퍼포먼스'를 펼쳤다. 스님은 5월 27일 조계사 분향소 앞에서 1m 높이의 가로 5m, 세로 7m 크기의 대형 달마도를 그렸다. 범주 스님은 달마도를 그린 뒤 '근조(謹謝) 노무현 대통령'과 '방하(放下)는 해탈(解脱)' 휘호로 마무리했다.

● 지관 스님 등 장의위원 선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관)는 5월 27일 정재계와 종교·시민사회를 막라한 국민장 장의위원회 1383명을 발표했다.

불교계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고문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정산 스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前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스님, 前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 등 15명이 장의위원 명단에 올랐다.

한편, 개신교계는 김준곤(성서화운동 총재), 박형규, 육한홍(사랑의교회 원로),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등 25명이 장의위원에 선임됐다.

영결식 불교의식 명진 스님이 집전

5월 29일 노무현 前 대통령 영결식 불교의식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집전했다. 스님의 집전에는 노 前 대통령 퇴임 직전 봉은사에서 108배를 하는 등 수행활동을 이어간 권양숙 여사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 스님은 영결식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며, 이제 당신의 육신은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로 돌아간다"며 간주된 '무상계' 법문을 했다. 이어 스님은 "육신을 움직이던 주인공은 어느 곳에 무엇으로 계십니까?"하고 묻은 뒤, "불가의 소신공양(燒身供養) 같은 행(行)을 보여준 노 前 대통령의 뜻은 천장을 비추는 달처럼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애도했다.

한편, 수련 연화장에서는 화장(火葬)이 진행되는 동안 화성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2교구와 한마음선원, 봉은사 학인 등 100여 스님이 독경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스님!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엠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엠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 소리공양 종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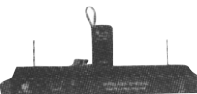
- 사찰, 법당 엠프설치 일절
- 엠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립니다)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 어떠한 엠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출력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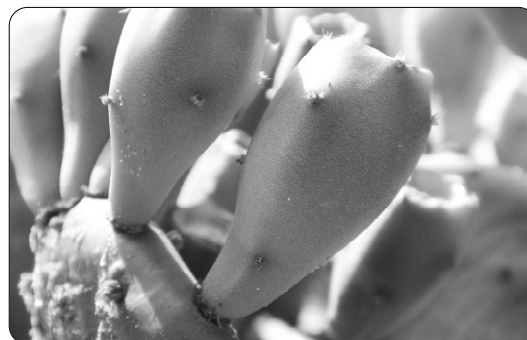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